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7월 15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 **찬송가** - 178장(신, 197장), 194장(신, 260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 **성경봉독** - 시편 65편 1~13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 **말씀 묵상 (기름진 복)**
 1.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시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진 복을 누리는 자와 같음을 드러냅니다.
 1절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며 서원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장소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2절). 그런데,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는 말은 내가 범죄했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한 “죄”문제 가운데 있는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뜰 곧,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 “엄위하신 일”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같은 5절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은 바로 3~4절에서 나타난 망쳐진 일 곧, “죄과”를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우리)은 복이 있는 것이지요.
 2. 6~13절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놀라운 일(구원)을 이루셨음과 그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에서 “추수”라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일어나서 떠를 떠 힘센 일군처럼 힘있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다의 흉용, 물결의 요동, 그리고 만민의 환화(시끄러운 세상일)을 잠재우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키시고 일자를 주관하셔서 잘 때와 일어날 때를 구분해 주시며, 때와 절기를 주관하신다고 합니다(8절). 하나님은 땅에 찾아오셔서(땅을 권고하사) 물을 직접 공급하시고 윤택한 땅을 만드시고, 강물이 풍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9절). 이 모든 것은 소위 “농사”를 위한 것이며, 그래서, 그 결과물인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시고 밭이랑을 부드럽게 하시며, 단비 곧, 소나기로 부드럽게 만드셔서, 짝이 나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10절). 11절에, “연사”는 영어로 “year”로,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 해는 곧, 농사를 짓는 해를 말합니다. 그 해에 풍성함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 “기름”이 흘러넘치는 곧,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름이 “들의 초장”에도 흘러넘쳐서, 언덕들도 푸르게 되었다고 합니다(12절). 또한, 목초지가 양떼로 덮였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기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풍요로운 그림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것입니다(13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풍년의 기쁨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사건 곧, “새생명의 사건”임을 알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있음이 진실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기름진 복”임을 알게 됩니다.
- ❖ **은혜 묵상**
 1. 돈과 명예와 권력과 관계 등등이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삶을 기름지게 하는 다른 요소를 생각해보고 나눕시다!
 2. 코로나19로 야기되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영원한 죽음문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름진 복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지금의 삶의 무게조차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